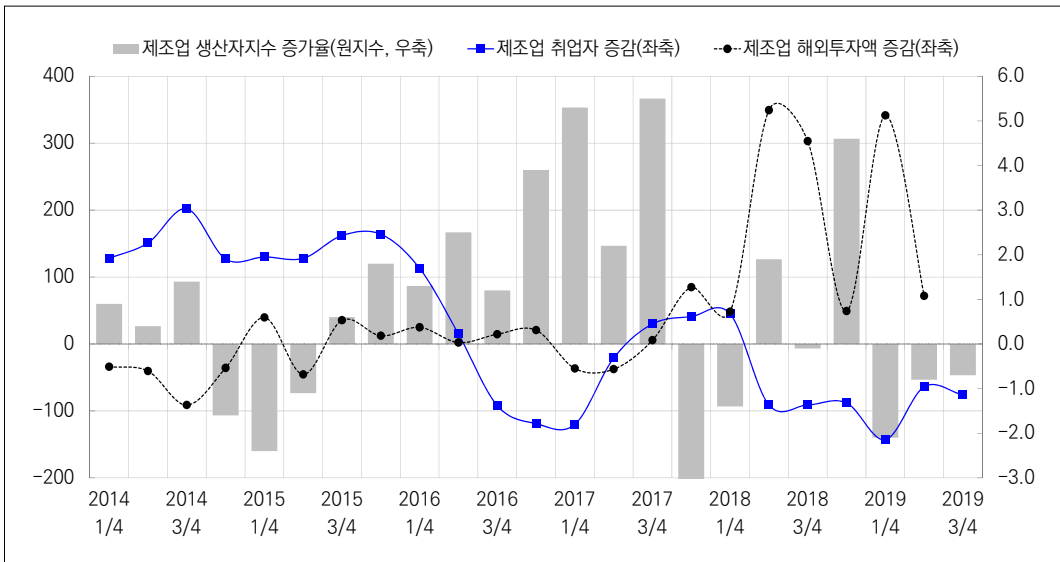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과 해외직접투자 변화 추이

- 최근 제조업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생산과 고용의 동반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됨.
  -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생산(-2.1%, -0.8%, -0.7%)과 출하(-1.6%, -1.4%, -0.8%)는 전년동기대비 줄어들고 재고(4.6%, 6.2%, 8.4%)는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고용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18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76천 명 감소함.
  - 한편, 제조업 해외투자액은 2018년 1분기 이후로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인 2019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34억 달러(141.2% 증가), 2분기에는 7억 달러(14.3% 증가) 증가함.

[그림 1] 분기별 제조업 생산 증가율, 취업자 증감, 해외투자 규모 증감 변화 추이

(단위 : %, 천 명, 천 만불,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광업·제조업동향조사」, KOSIS.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 연도.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규모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별로 전기·전자, 화학물질, 자동차 등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고 나라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으로의 투자가 활발했음.
- 2019년 상반기 기준(전체 제조업 약 120억 달러)으로 가장 많은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24억 달러)이었으며 화학물질(20억 달러), 자동차(12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음. 전년동기대비 해외직접투자액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기타 기계(15억 달러, 759.3%), 식료품(11억 달러, 434.2%), 전기장비(10억 달러, 220.8%) 등이었음.

〈표 1〉 제조업 주요 중분류별 해외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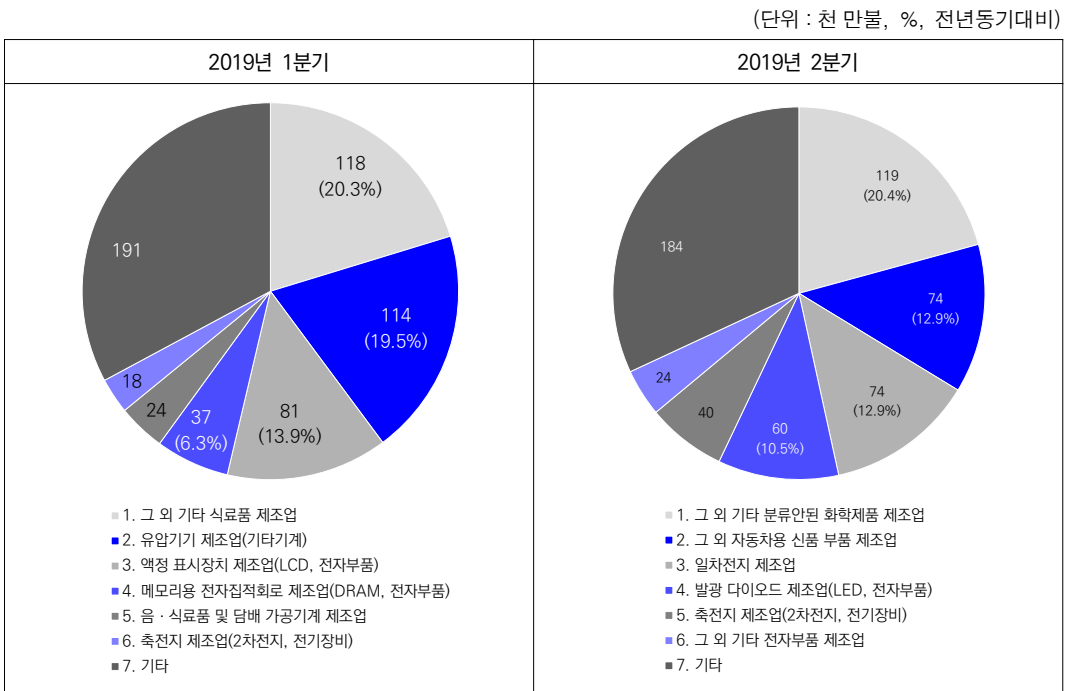
(단위 : 천 만불,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간			상반기			
	2016	2017	2018	2017 1/2	2018 1/2	2019 1/2	
제조업 전체	866 (7.7)	883 (1.9)	1,632 (84.9)	346 (-17.7)	743 (114.8)	1,157 (55.6)	
업 종 별	식료품 제조업 (10)	44 (43.9)	55 (24.8)	59 (8.1)	12 (-37.9)	25 (115.9)	133 (434.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116 (42.3)	89 (-23.4)	145 (63.9)	47 (12.6)	73 (53.5)	202 (179.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26)	152 (22.3)	156 (2.4)	518 (232.3)	62 (-17.3)	371 (503.7)	239 (-35.6)
	전기장비 제조업 (28)	65 (22.8)	64 (-2.6)	170 (167.1)	22 (-38.7)	46 (113.4)	147 (220.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41 (-35.0)	41 (2.0)	41 (-1.1)	13 (-10.6)	19 (48.2)	164 (759.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136 (-30.4)	175 (28.5)	346 (98.4)	45 (-45.3)	94 (109.7)	121 (28.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37 (62.6)	62 (68.5)	9 (-85.3)	34 (92.8)	4 (-87.0)	4 (-21.2)
국 가 별	중 국	253 (-89.4)	239 (-5.6)	437 (82.8)	63 (-43.5)	141 (124.0)	363 (156.7)
	베트남	176 (54.0)	140 (-20.7)	195 (39.7)	73 (-16.2)	113 (54.4)	115 (2.3)
	미 국	129 (47.0)	109 (-15.3)	194 (77.4)	53 (-14.4)	39 (-26.6)	304 (686.9)
	인 도	27 (-3.0)	42 (56.0)	93 (123.7)	10 (-33.9)	57 (470.1)	16 (-71.2)
	폴란드	5 (50.2)	21 (339.9)	52 (151.3)	4 (95.3)	18 (359.9)	65 (260.5)

주 : 괄호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 연도.

- 국가별로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37억 달러), 미국(30억 달러), 베트남(12억 달러) 등에서 투자 규모와 투자액 증가 정도가 컸음. 중국은 주로 전자부품(17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11억 달러 증가), 전기장비(75억 달러, 57억 달러 증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화학물질(13억 달러, 12억 달러 증가), 식료품(12억 달러, 12억 달러 증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음.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세부적인 업종분류 단위로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적 상세하게 어떤 분야에서 해외진출이 활발한지 가늠할 수 있음.
  - 2019년 1분기에는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계란류 가공 등)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20.3%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유압기기(유압펌프, 실린더, 모터 등)가 19.5%, LCD를 포함한 액정 표시장치가 13.9%로 비중이 컸음.
  - 2019년 2분기에는 정유 혼합물 등이 포함된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투자 비중이 20.4%,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어백, 소음, 냉각장치 등)이 12.9%, 일차전지(리튬, 수은전지 등)가 12.9%, LED가 포함된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이 10.5%로 나타났다.

[그림 2] 2019년 상반기 제조업 산업별 해외투자 금액 비중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 연도.

- 이로 미루어 보아 최근에 나타나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규모 증가는 기존에 해외 진출이 활발했던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의 투자 증가세에 기계, 식료품 등 새로이 해외투자가 늘고 있는 산업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인 것으로 보임.
- 제조업의 특성상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시설에 대한 해외투자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관련 산업의 국내 고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산업의 업황이나 고용 향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